

제1장 기업과 사회의 관계

<CONTENTS>

- 기업(enterprise)의 정의
- 상법 상 회사의 정의
- 기업과 경영의 관계
- 기업의 형태
-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단계
- 아나톨 칼레츠키(Anatole Kaletsky)의 “자본주의 4.0”
- 자본주의 4.0과 대한민국
- 사회적 기업

■ 기업(enterprise)의 정의

- 사회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활동을 조직적으로 영위하는 경제 단위
 - 사회구성원들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
 -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소득의 원천을 제공
- 과거에는 자본가가 소유하는 사적 경제단위로 인식
- 현재에는,
 - 사회의 모든 부문과 깊은 관계를 가지면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
 -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중요한 사명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인식

■ 상법 상 회사의 정의

-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기업을 '회사' 라는 명칭으로 정의
- 회사는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사단으로서 법인격을 갖춘 것'으로 규정
- 회사의 구성요소
 - 사단성
 - 법인성
 - 영리성

■ 기업과 경영의 관계

- 기업이 없는 경영은 이루어질 수 없고, 경영이 없는 기업은 무의미.
- 기업은 경영의 대상이며, 경영은 기업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이루어 지는 행위
- 기업이 하드웨어라면 경영은 소프트웨어

■ 기업의 형태

- 기업은 출자자에 따라 사기업(private firm)과 공기업(public firm)으로 구분
- 공기업 - 공익추구를 목적으로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설립한 기업
- 사기업 - 영리추구의 목적으로 개인이 설립한 기업
- 사기업은 단독기업과 공동기업으로 분류

분류기준		기업의 형태
사기업	단독기업	개인회사
	공동기업	합명·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공기업		국영기업, 공사, 공단, 지방공익기업

1. 개인회사

- 한 명의 출자자에 의해 소유되고 운영되는 기업
- 개인회사의 특징
 - ① 소유자가 단 한 사람이므로 설립이 쉽다
 - ② 소유자와 기업의 구분이 없다
 - ③ 소유자는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 ④ 존속 기간은 소유자의 수명으로 제한된다.
- 개인회사의 형태를 취했던 회사는 성장과 함께 소유자 개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기업의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일반적

2. 공동기업

- 개인기업에 대응하는 용어
 - 공동기업은 그 구성요소인 인적 요소와 자본적 요소 가운데서 그 어느 것에 더 중점을 두는가에 따라 인적 공동기업·혼합적 공동기업·자본적 공동기업의 3가지로 분류
-
- ① 인적 공동기업: 소수인이 협동하여 금액을 출자하고 동시에 협동하여 경영하는 것이며, 그 법률적 형태는 대개가 합명회사이다. 대체로 개인기업과 같은 장단점을 가지나 개인기업에 비하여 보다 다액의 자본을 모을 수 있고, 경영 기능을 분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여러 사람이 경영하는 까닭에 상호간에 제약을 받게 되어 협동이 곤란해지는 단점이 있다.
 - ② 혼합적 공동기업: 보통 합자회사·익명회사·유한회사 등의 법률적 형태를 채용하는 것으로서 대체로 인적 공동기업과 같이 중소기업에 적당한 기업형태이다.
 - ③ 자본적 공동기업: 주식회사를 그 법률적 형태로 채용한다. 오늘날의 가장 중요하고 지배적인 기업형태가 이것이다. 그 장점으로서는, ㉠ 자본의 증권제도 및 유한책임제도이며, 다액의 자본을 규합할 수 있는 점, ㉡ 출자와 경영의 분리로서, 중역제도(重役制度)에 의하여 통일적·능률적 경영을 할 수 있는 점, ㉢ 경영의 항구성 등을 들 수 있다.

출처. 두산백과(2014.3.8. 검색).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63179&cid=40942&categoryId=31822>)

3. 주식회사

- 둘 이상의 주주가 출자하여 설립한 기업
- 주식회사의 특성
 - ① 소유주인 주주와 분리되는 법인격(Legal person)을 가진 기업
 - ② 소유자는 회사의 채무에 대해 유한책임
 - ③ 주주들은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납부
 - ④ 주주의 수와 자격에 대한 제약이 없음

■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단계

1. 경영자 자본주의 (Management capitalism)

- 주식회사에서 경영이 전문경영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영체제
- 주주가 경영자를 임명하고 경영자는 경영 전반을 책임지는 형태
- 경영자 자본주의의 전성기 (1932~1975년 미국)
 - 자본이득에 대한 세율 < 배당금에 대한 세율
 - 배당금을 지급받는 것보다 기업의 성장으로 주가가 올라 주가를 상승시켜서 자본이득을 얻는 편이 훨씬 유리
 - 대주주들은 기업 경영을 전문경영자에게 위임하고 배당에 대해서도 과도한 요구를 하지 않음
- 경영자는 기업이 창출한 이익을 신규투자액에 활용
- 경영자의 권한과 영향력은 더욱 확대되고 기업 규모를 추가로
- 기업성장과 사회에 대한 기업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동기로 작용
- 다른 한편으로는 경영자가 자신의 권한과 영향력을 더욱 확대시킬 목적으로 축적된 내부자금을 신규투자액과 기업인수에 집중적으로 활용

⇒ 산업 전체적으로는 과잉투자액과 과잉설비의 문제 발생

2. 주주 자본주의(Stockholder capitalism)

- 1960년 대 후반 미국 경기 침체로 인한 주가 하락이 계기
- 주식시장이 발달한 미국, 영국 등에서 발달한 자본주의 모델
- 경영의 초점은 주주
 - 주주에게 최대한 많은 배당이나 시세차익을 확보
 - 주주의 세금을 최소화
 - 주주의 금전적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경영자가 기업을 경영
-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소액주주권리의 강화, 사외이사제도의 확대, 경영 투명성 강화 등의 형태로 전개
- 사실 주주 권리를 강조하는 주주자본주의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님
- 하지만,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손상시키면서 주주 이익만을 추구한다면 사회적인 문제가 초래될 수 있고,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도 어려울 수 있음

⇒ 예로 배당과 주가관리에만 전념할 경우 신규투자 감소로 인한 성장 동력 상실과 종업원의 채용감소 발생

3. 이해관계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

- 기업의 공익적 책임을 중시
-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공존공영에 기업 경영의 초점을 맞추는 자본주의 모델
- 자본시장이 덜 발달되고 은행 중심의 금융시스템을 가진 독일에서 시작
- 미국에서도 2011년부터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
 - 이익 추구에만 몰두하면 지속 가능한 경영이 힘들다는 인식이 증가 했기 때문

■ 아나톨 칼레츠키(Anatole Kaletsky)의 “자본주의 4.0”

- 자본주의 1.0 - 18세기 자유방임주의에 입각한 고전적 자본주의
- 자본주의 2.0 - 1930년대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수정적 자본주의
- 자본주의 4.0 - 1970년대 말 시장의 자율을 강조했던 신자유주의
- 자본주의 4.0 - 2000년대 이후 본격화된 공생적 자본주의

<자본주의의 진화 형태>

자본주의	대두시기	특징	대표어록
고전적 자유주의 (자유방임주의) - 1.0시대 -	18세기 후반	자유롭고 경쟁적인 시장에서 각 주체들이 이윤추구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경제가 생산성을 극대화 한다고 보는 체제	개인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지만 그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전체경제의 복리가 증진된다(애덤 스미스)
수정적 자본주의 (케인즈주의) - 2.0시대 -	1930년대 대공황 1960년대	독점의 폐해와 빈부격차 등을 국가의 개입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	정부기능의 확대는 현 경제체제의 전면적인 붕괴를 회피하는 유일한 수단이므로 지지한다(존 메이나드 케인즈)
신자유주의 (통화주의) - 3.0시대 -	스태그플레이션 1970년대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비판하고 자유시장과 자유무역, 규제완화, 국제적 분업 등을 강조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시장을 내버려두지 않고 간섭하면 시장보다 더 큰 불평등이 초래된다. 이런 불평등은 정치적 불평등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억누를 것이다(프리드리히 폰 하이에크)
공생적자본주의 (공동체자본주의) - 4.0시대 -	2000년 이후 본격화	시장주의 바탕위에서 사회공헌이라는 부가가치를 생산해야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고 믿는 상생의 체제	좋은 일을 하면서 돈 버는 기업이야말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도구가 된다(무하마드 유누스)

출처. 최종태(2011). 자본주의 4.0시대의 사회적 기업과 경영학.

■ 자본주의 4.0과 대한민국

- 연금·교육·의료·각종 사회 인프라 등에서 공공의 기능을 축소하고, 민간 기업의 역할 확대가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
- 정부는 민간부문에서 해결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실업 등에 대해서만 직접적인 지원을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
- 사회의 전반적인 복지확대는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주요단계 중 하나이기 때문에, 한국을 포함한 모든 신흥국가들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
- 한국의 건강보험제도와 관련하여 정부는 심각한 질병이나 긴급한 상황 등에는 도움을 주되 감기 등의 질병에는 보험 혜택을 주면 안 된다고 주장
- 한국 정부가 주장하는 공생발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모델은 매우 바람직한 반면, 과거처럼 몇몇 대기업이 산업 전체를 이끌어가는 시장구조는 심각한 경제불균형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음을 지적

■ 사회적 기업

○ 사회적 기업이란?

- 시장실패나 정부실패에 의해 초래된 사회적 문제해결을 목적으로 수익창출을 위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
- 영리조직과 비영리조직의 중간 형태의 조직

○ 그라민은행(Grameen Bank)

- 사회적 기업의 효시는 노벨 평화상을 받은 방글라데시의 빈민운동가 무하마드 유누스(Muhammad Yunus)가 세움
- 빈민들에 대한 무담보 소액대출 프로젝트가 성공을 거두자, 1983년에 그라민은행이라는 법인을 설립
- 1993년에 첫 흑자를 기록하였고, 97%의 대출 회수율 달성
- 400만 명 이상의 빈민의 절대 빈곤 탈출에 도움

- 그라민은행은 빈민의 구제라는 사회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대출자들에게 대한 밀착되고 정교한 심사, 엄격한 연체관리시스템 등 영리조직의 경영기법들을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이는 그라민은행처럼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이 시장과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는 빈곤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만약 그라민은행의 대출이 회수되지 못하여 계속 적자를 면치 못했다면, "빈민들을 절대 빈곤으로부터 구제"라는 사회적 가치가 실현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라민은행은 빈곤퇴치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이면서 국제금리 수준보다 높은 금리의 대출과 높은 회수율을 통해 고수익을 올리는 우량은행이기도 하다

<시사점>

- 사회적 기업이 정부실패와 시장실패가 발생하기 쉬운 영역에서 사회적 가치를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는 가능성
-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는 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경제적 가치의 창출이 필요

<참고 사이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http://www.socialenterprise.or.kr/about/present.do>

이러닝 교육과정 http://edu.socialenterprise.or.kr/Apply/Classinfo_List.asp